(사)경제문화공동체 더함

2013 - 10(호)
광주In 2013. 10. 10

광주 '인사이트(Insight) 경제'

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

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-42번지(3층)
T (062) 431-6339 F (062) 262-6340
http://www.eccplus.co.kr

《요 약》

▶ 경기지표

광주지역 8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4.3보다 소폭 하락한 4.0을 기록함.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지표는 상승세, 반면 내수 지표는 하락세를 보임.

▶ 제조업 및 수출

광주지역 8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3.6%로 급상승하였음. 주요 업종별로는 전자제품, 전기 장비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하락했고 고무 및 플라스틱과 자동차 제조업은 상승함. 광주지역 8월 수출액은 12억1061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7.8% 증가했음.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제품과 수송장비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데서 기인함.

▶ 내수

광주지역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2.6으로 주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으면서 유일하게 100이하를 기록함.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417억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광주지역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아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줌.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.45%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감.

▶ 고용

광주지역 8월 실업률은 2.5%로 전국 평균 3.0%보다 낮음. 고용률은 56.8%로 전국 60.0%에 미치지 못함. 실질실업률은 9.64%로 여전히 높은 편임. 자영업자의 비중과 상용근로자 또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. 연령별로는 20대~40대의 취업자수는 정체되어 있고 50대와 60대의 취업자는 증가함.

▶ 물가 및 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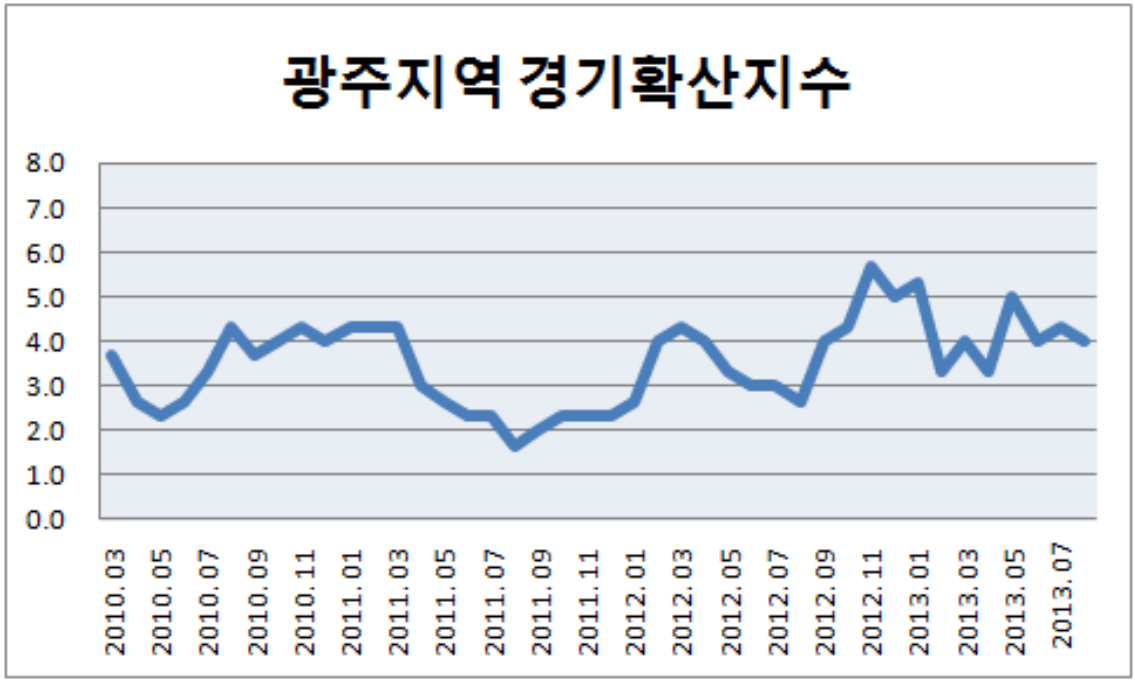
9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.1% 상승함. 주택가격과 공공요금의 인상, 교육비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견인함. 9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.9%,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2.0% 상승함.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.4%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. 낮은 소득으로 인해 2013년 2분기 광주지역 슈바베 지수(주거비/가계소득), 엥겔지수(음식료/가계소득), 생계비 지수([음식료+주거비]/가계소득), 의식주 지수([음식료+주거비+의복]/가계소득)는 전국평균을 상회함. 2013년 2분기 광주지역 가계수지는 88만9837원, 22%의 흑자로 추정됨.

▶ 가계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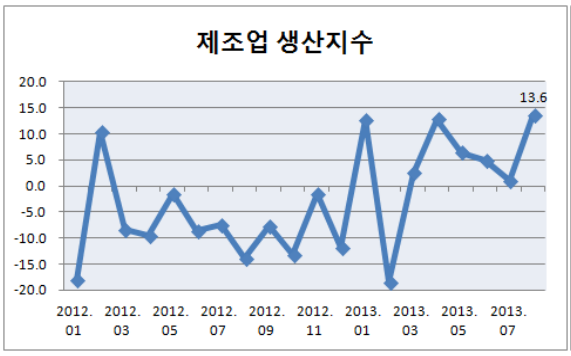
8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503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.2% 상승함.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5.3%를 차지함.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8.8%,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3.3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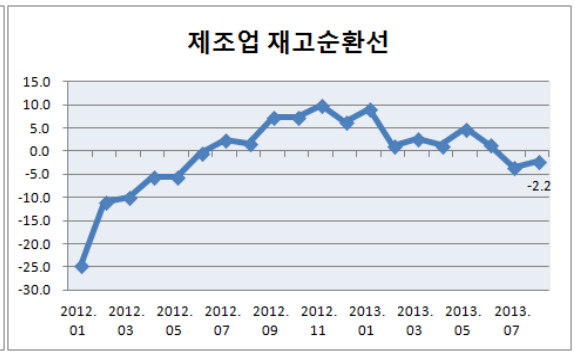
1. 경기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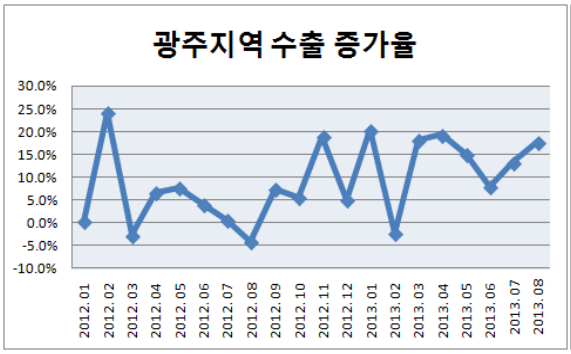
□ 광주지역 8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4.3보다 소폭 하락한 4.0을 기록함.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지표는 상승세, 내수 지표는 하락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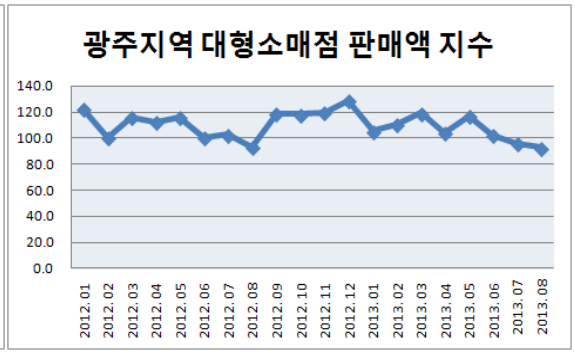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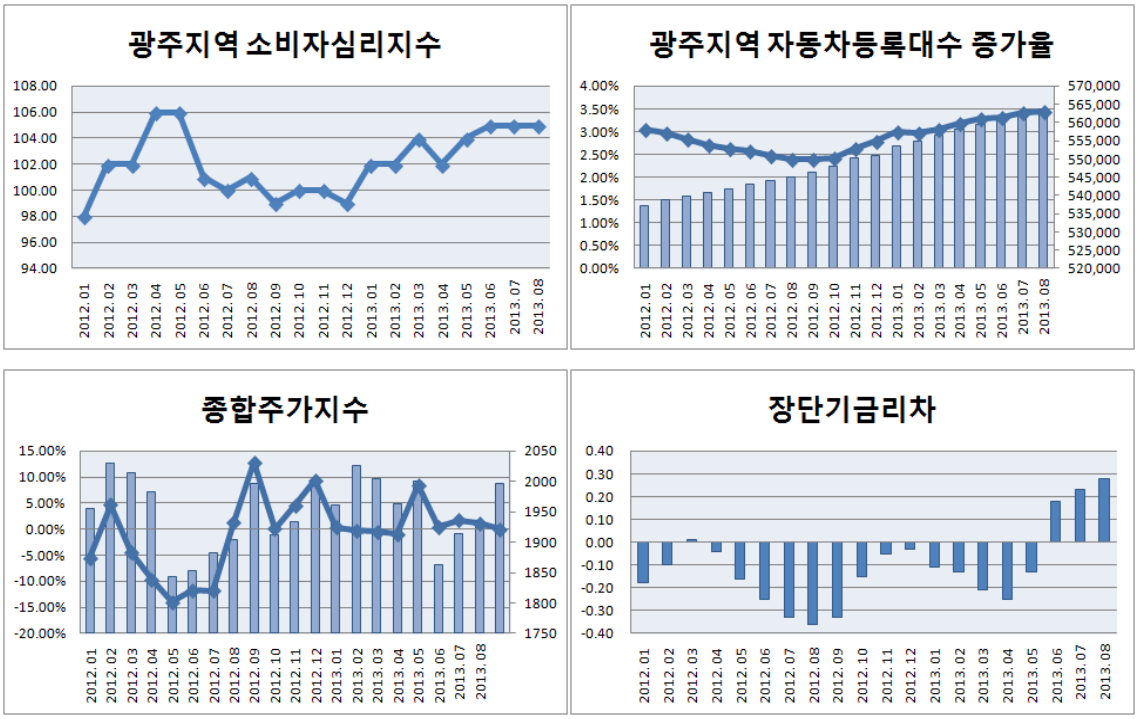
*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(사)경제문화공동체더함에서 만든 지수입니다. 생산, 수출, 내수, 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·취합하였고 0에서 8사이에서 경기의 등락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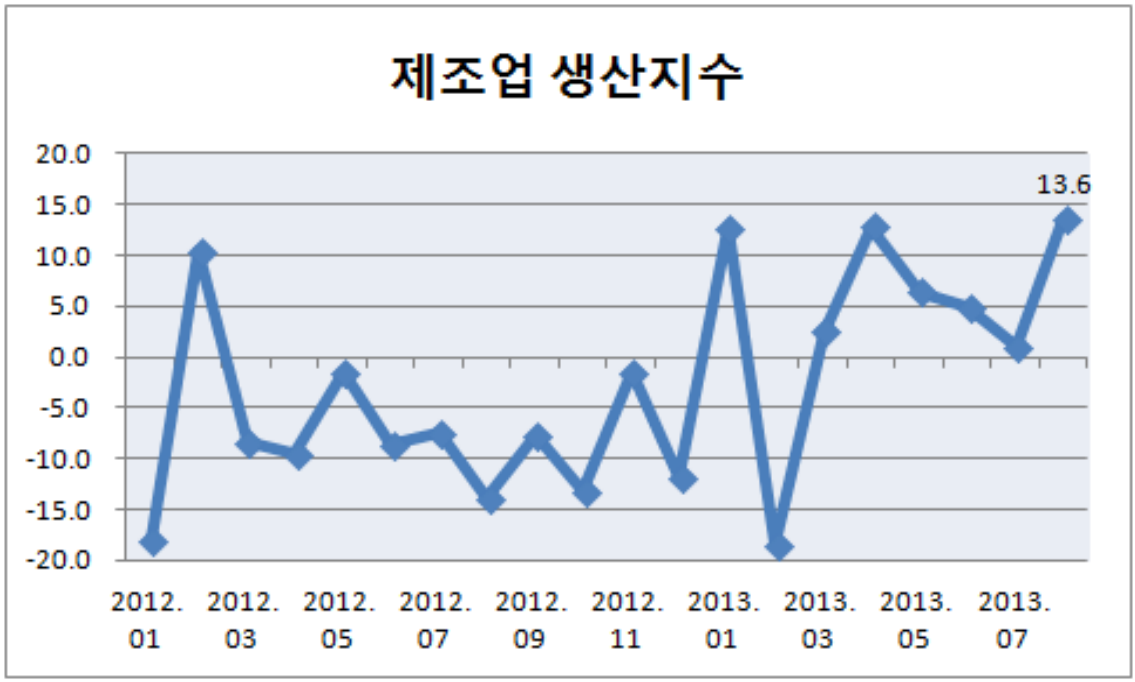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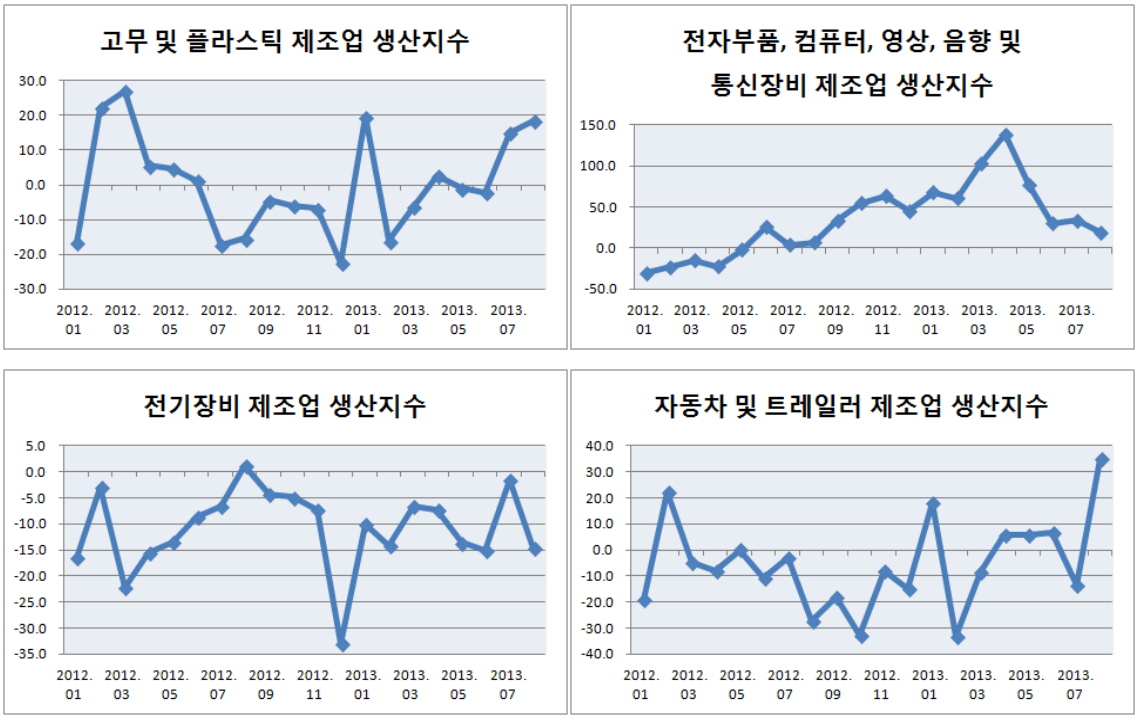


2. 제조업 및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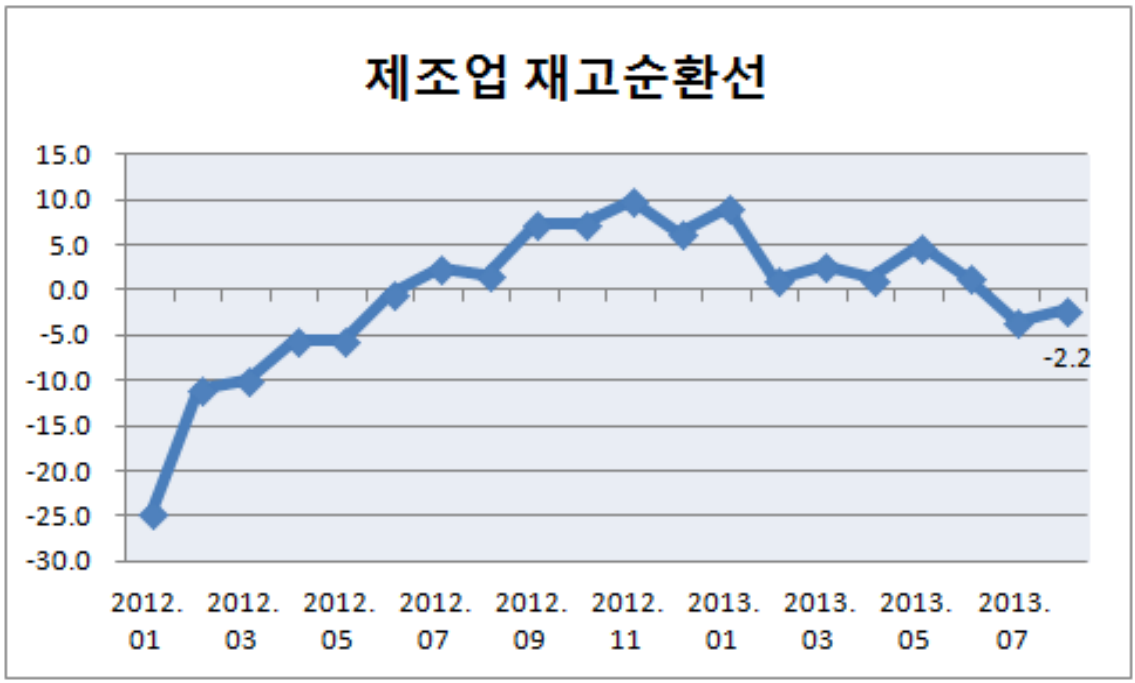
□ 광주지역 8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3.6%로 급상승하였음. 지역 내 제조업중 비중이 큰 자동차 제조분야의 호황이 상승 견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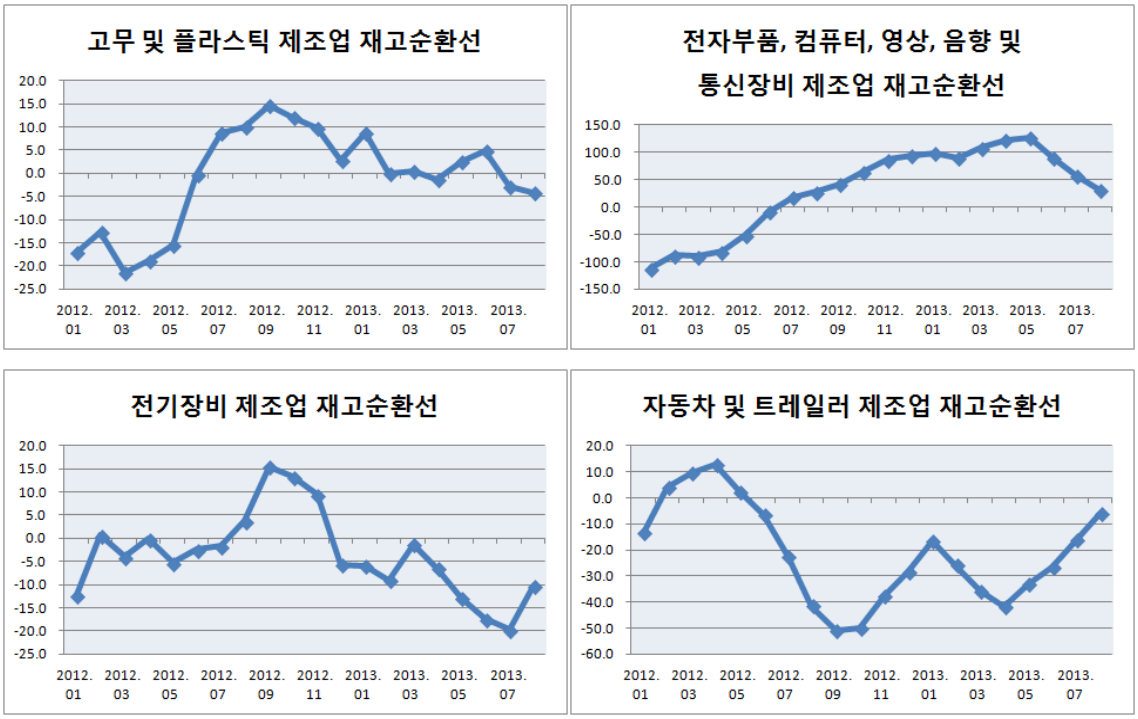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업종별로는 전자제품, 전기 장비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하락했고 고무 및 플라스틱과 자동차 제조업은 상승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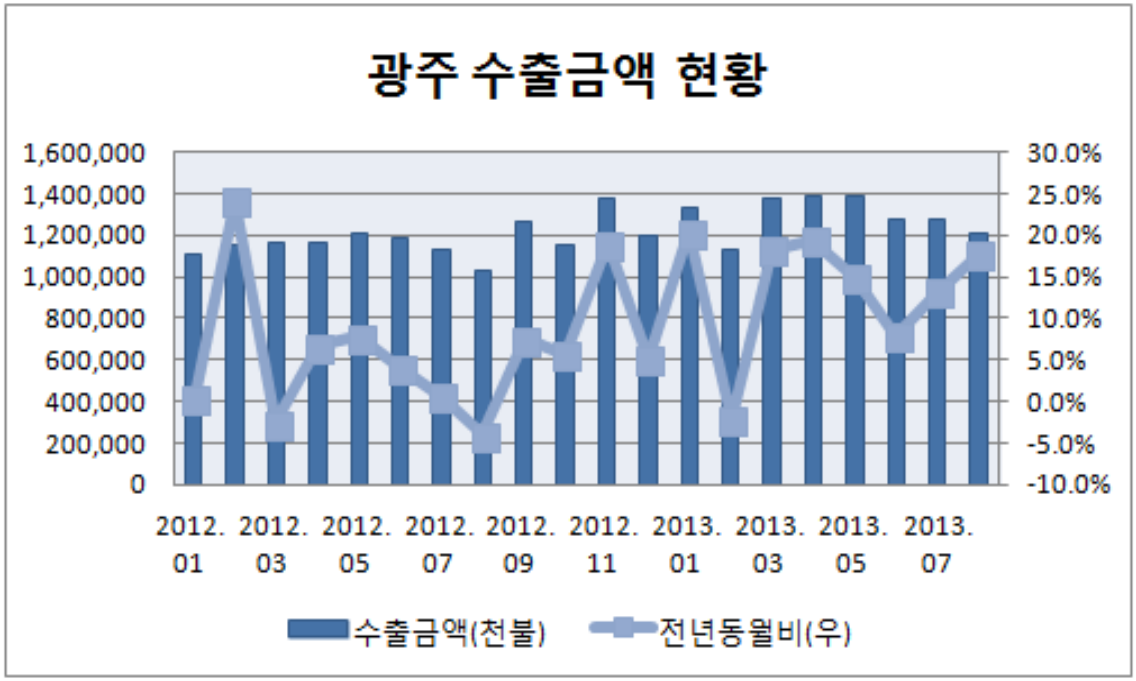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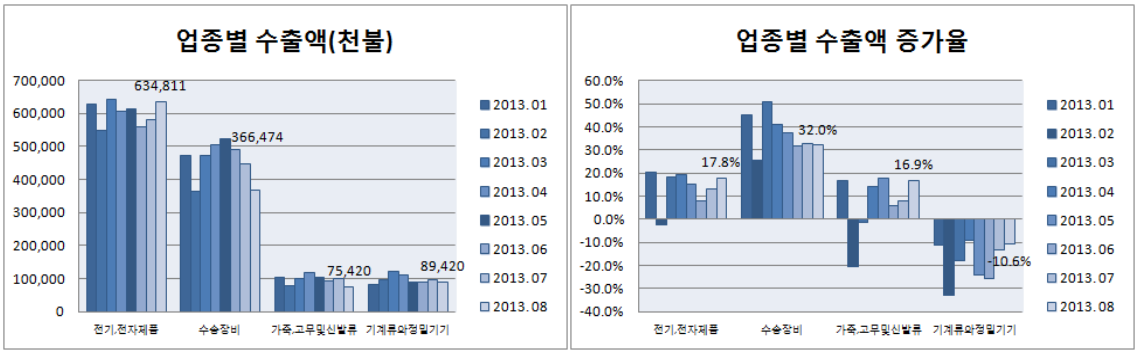
□ 광주지역 8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 -2.5보다 소폭 상승한 -2.2를 기록함. 주요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, 전자부품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하락했고 전기 장비, 자동차 제조업은 상승함.





□ 광주지역 8월 수출액은 12억1061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7.8% 증가했음.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제품과 수송장비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데서 기인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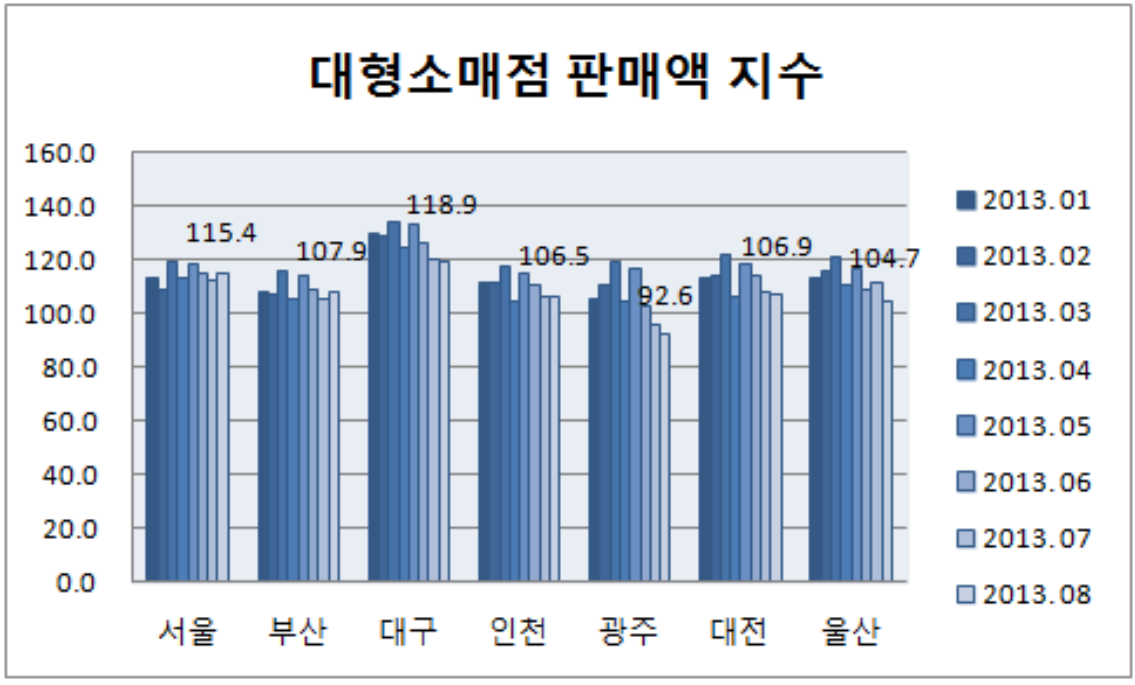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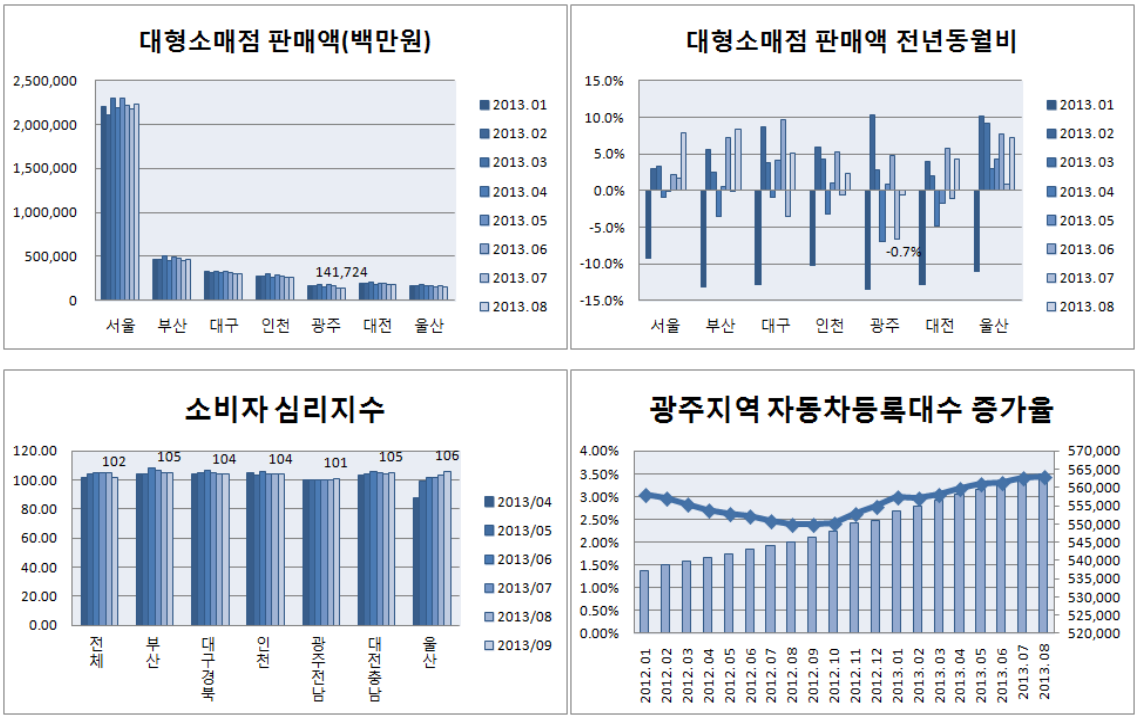
3. 내수

□ 광주지역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2.6으로 주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으면서 유일하게 100이하를 기록함.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417억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증가율도 전년동월비 -0.7%하락하면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감소함.

□ 광주지역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아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줌.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.45%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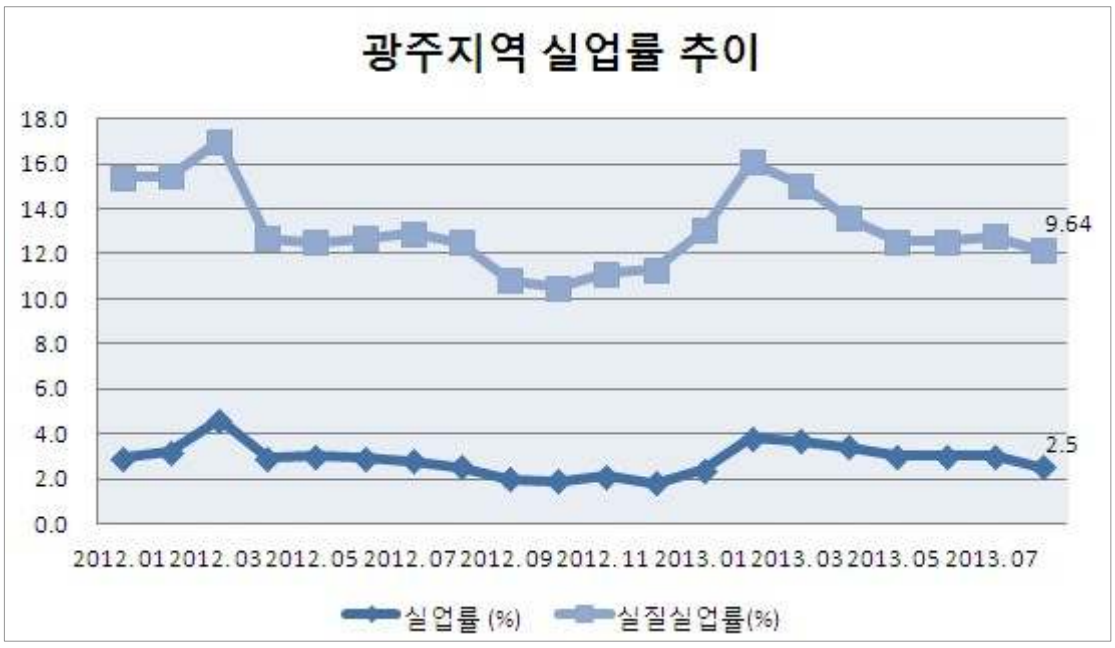
□ 소매점판매액 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모두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수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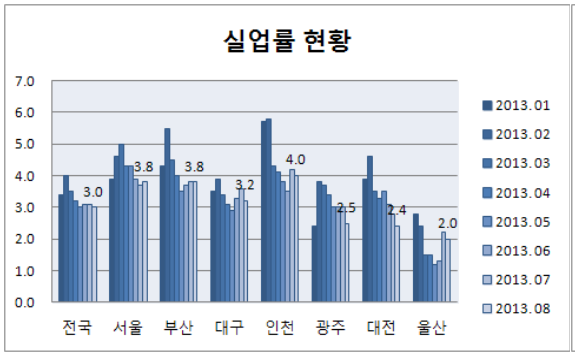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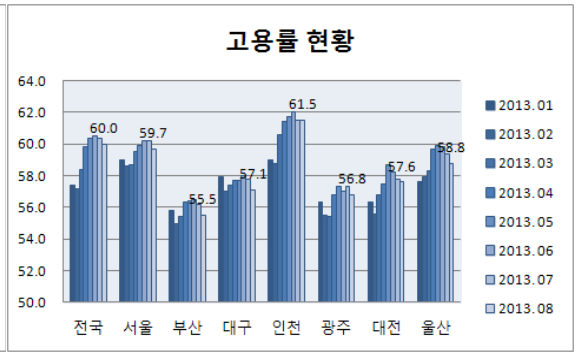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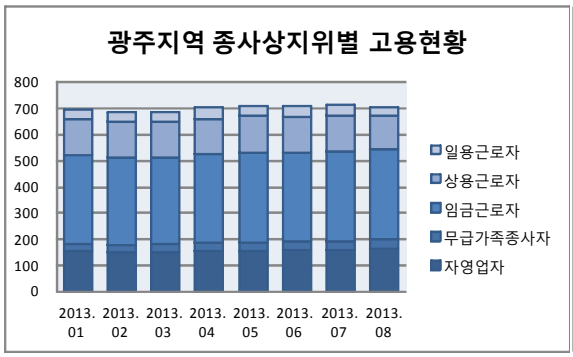
4.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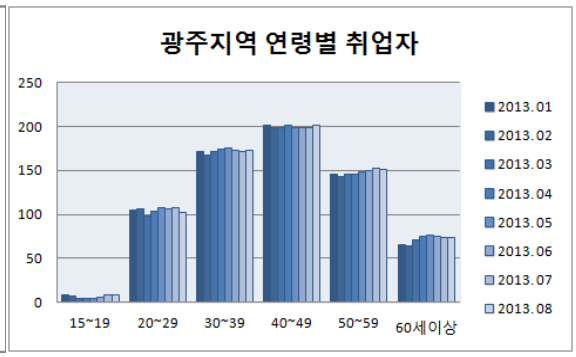
□ 광주지역 8월 실업률은 2.5%로 전국 평균 3.0%보다 낮음. 고용률은 56.8%로 전국 60.0%에 미치지 못함. 자영업자의 비중과 상용근로자 또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. 연령별로는 20대~40대의 취업자수는 정체되어 있고 50대와 60대의 취업자는 증가함.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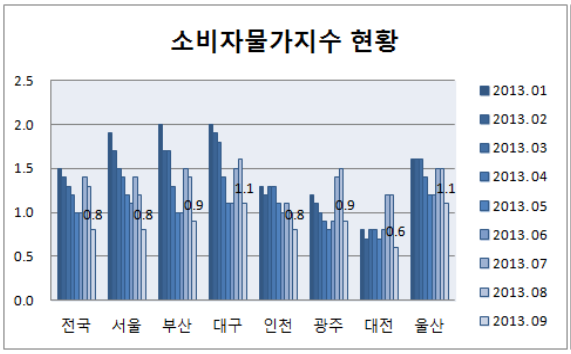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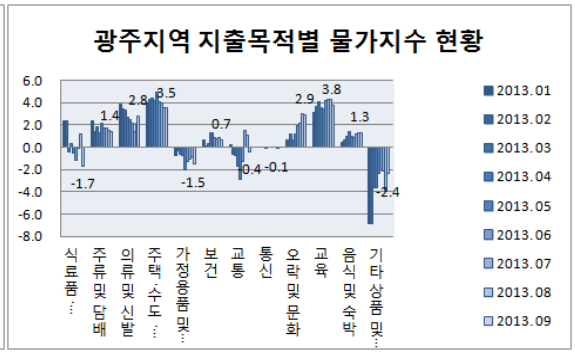
- 광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과 월평균 임금

산업 분류	2013년	월평균임금(만원)
계	100.00%	215
농업, 임업 및 어업	2.70%	135
광업	0.00%	271
제조업	14.60%	245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0.40%	354
하수 ·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0.10%	236
건설업	9.70%	229
도매 및 소매업	16.70%	196
운수업	4.80%	237
숙박 및 음식점업	6.60%	131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1.60%	296
금융 및 보험업	3.80%	311
부동산업 및 임대업	1.70%	179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.70%	315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4.80%	159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4.60%	280
교육 서비스업	8.90%	240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7.80%	183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1.20%	168
협회및단체,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6.50%	180
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	0.60%	90
국제 및 외국기관	0.00%	33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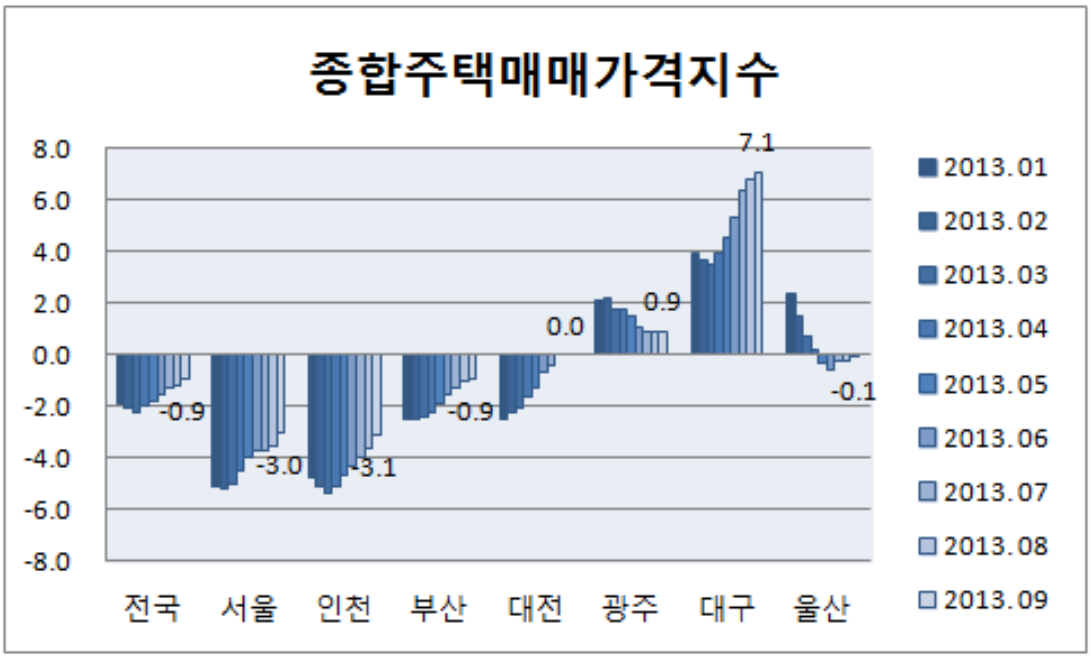
5. 물가 및 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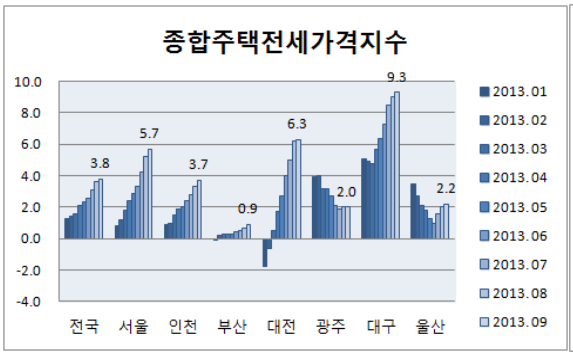
□ 9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.1% 상승하여 전국 물가상승률 0.9%를 넘어섬.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·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, 교육비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견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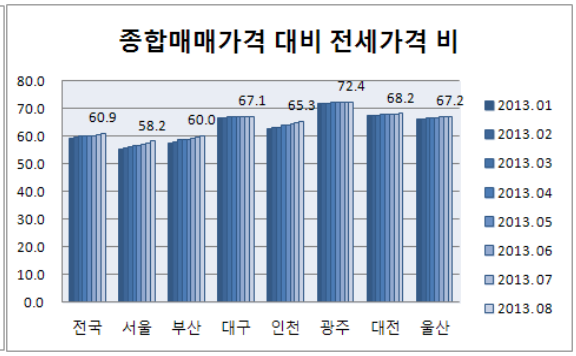




□ 9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.9%,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2.0% 상승함.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.4%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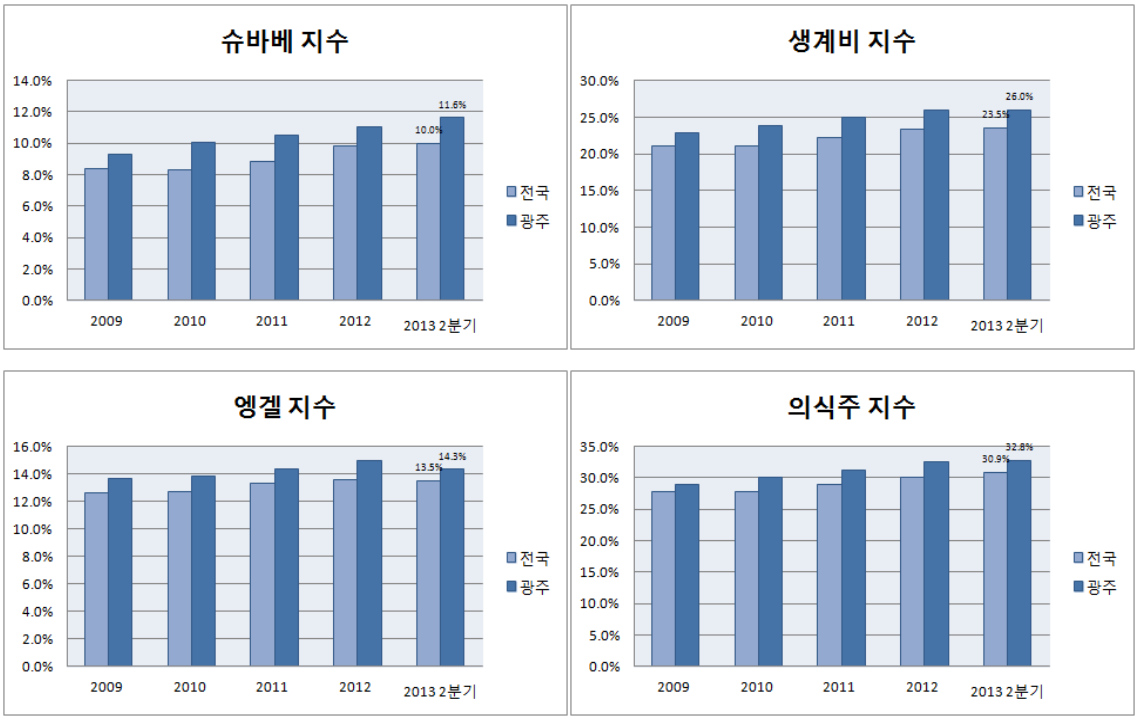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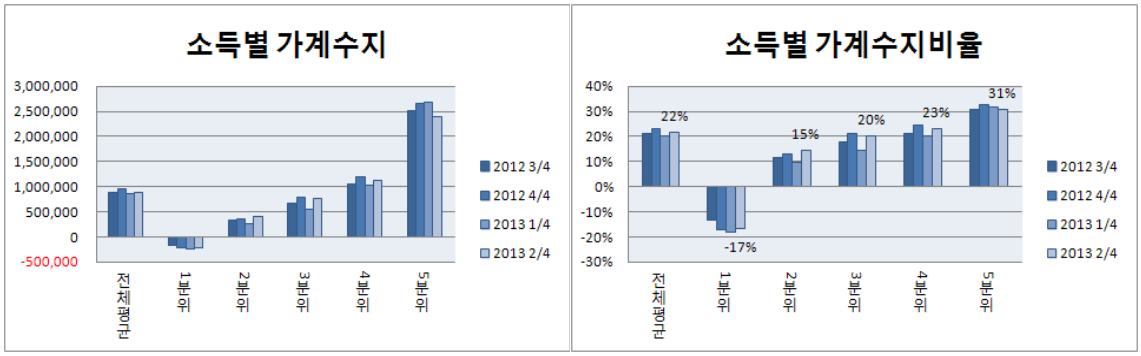
□ 2013년 2분기 광주지역 슈바베 지수(주거비/가계소득)는 11.6%로 전국평균을 상회함. 엥겔지수(음식료/가계소득)는 14.3%로 전국평균을 상회함. 생계비 지수([음식료+주거비]/가계소득)는 26.0%로 전국평균을 상회함. 의식주 지수([음식료+주거비+의복]/가계소득)는 32.8%로 전국평균을 상회함.

□ 이는 타지역에 비해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가계생활에 필수적인 주거비, 음식료, 의복 등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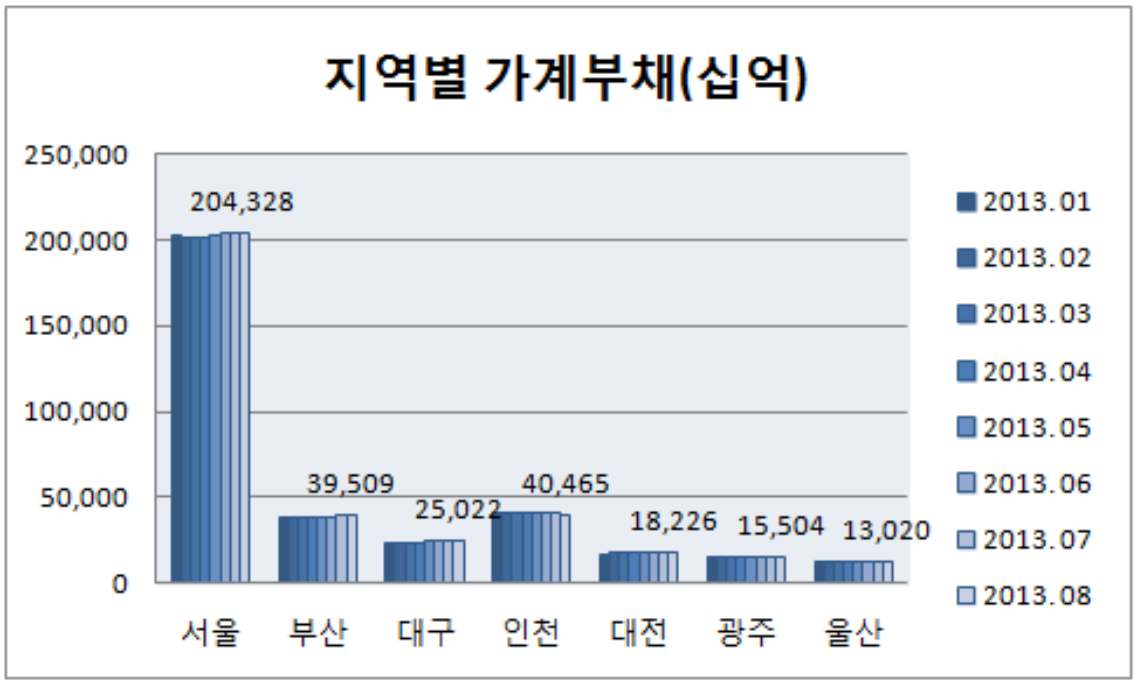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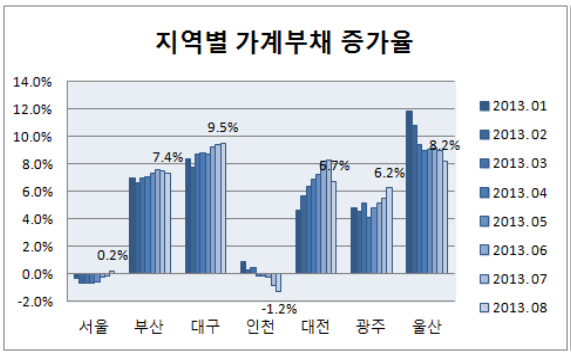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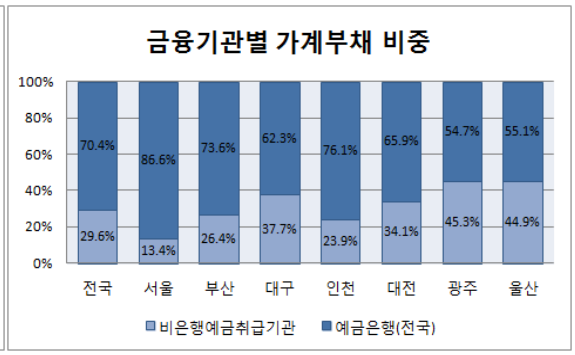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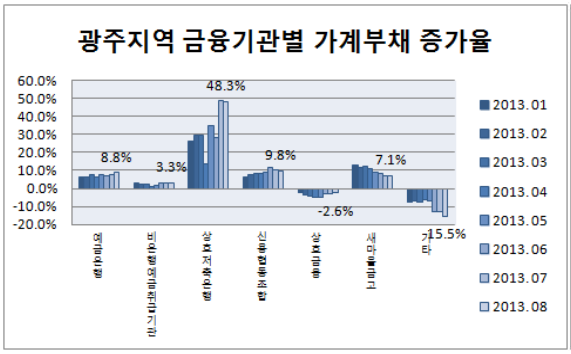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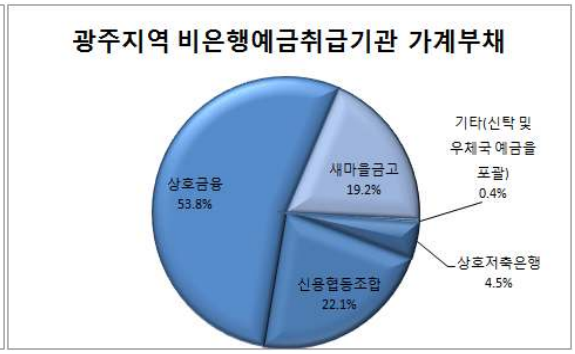
□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등 외부요인에 가계 경제가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지역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

□ 2013년 2분기 광주지역 가계수지는 88만9837원, 22% 흑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득 1분위의 가계수지는 21만8662원, 17%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추정됨.



6. 가계부채

□ 8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503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.2% 상승함.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5.3%를 차지함. 기관별로 상호금융 53.8%, 신용협동조함 22.1%, 새마을금고 19.2%, 상호저축은행 4.5%의 비중임.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8.8%,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3.3%임.

□ 전체적인 부채액은 낮은 수치이나 상대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(1금융권을 제외한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협, 저축은행 등)의 비중이 높은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함.